

배포일시	2020. 7. 17.(금) 16:5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99

대전·세종·충남 주말사이 많은 비 주의!

- 19일(일) 아침~20일(월) 오전까지 많은 비
 - 19일 낮, 20일 새벽~아침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
 - 대전·세종·충남 총 예상강수량 100mm 내외



[7월 20일 아침]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강수 전망]

- (원인과 전망) 중국 중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(그림 ①)과 함께 제주도 남쪽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(그림 ②)이 북상하면서 19일(일) 새벽 충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되어, 19일(일) 아침에 대전·세종·충남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습니다.
- 20일(월) 저녁에 저기압(그림 ①)이 우리나라 북동쪽(연해주 부근)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(그림 ②)은 남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21일(화) 오전에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치겠습니다.
- (강수집중 구역과 시기) (1) 19일 낮과 20일 새벽~오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겠고, (2) 북서쪽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20일 새벽~오전까지 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여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특히, 대비가 취약한 밤과 새벽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월요일 출근시간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 및 교통 혼잡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- (강수량) 정체전선(그림 ②)의 영향을 주로 받는 대전·세종·충남을 중심으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상세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18일에 발표되는 날씨해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

- (변동성) 최근 우리나라 상공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매우 느려진 가운데 저기압(그림 ①)의 이동속도까지 느려질 경우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한, 건조한 공기의 강도가 강해질 경우 정체전선(그림 ②)에 동반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.

23~24일 강수 전망

- 23(목)~24일(금)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- 다만,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경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강수량과 강수 집중지역(시기)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9일 오후~20일 오전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풍이 불고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,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(풍랑) 저기압이 북동진하는 서해상은 19일,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해상과 제주도전해상은 20일에 시속 35~55km(초속

10~16m)의 강한 바람과 함께 2~4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기온 전망]

- 18일 낮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℃ 이상 오르고 저기압의 동쪽으로 습윤한 공기가 밀려들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.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온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20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7℃ 안팎이겠으나, 비가 그친 21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℃ 내외로 올라 더운 날이 많겠고, 23~24일에도 비가 예상되어 27℃ 안팎이 되겠습니다.